

## 미국 SUN VS·MS 인터넷 패권 경쟁

세계 워크스테이션(WS)업계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선사는 지난해부터 「자바」라는 독특한 인터넷 언어로 미 IBM·오라클·휴렛팩커드등 내노라하는 업체들을 제치고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선은 웹 검색프로그램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로 또다른 신화를 낳은 넷스케이프사를 비롯한 수십개 기업에 평균 10만달러선의 로열티를 받고 라이선스를 공여하고 있다.

이런 선의 맥닐리회장의 자바 상표권 보호라는 또다른 카드를 내밀었다. 선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에 자바용어를 쓰고 있는 10여개사에 경고서한을 보내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미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자사 마이크로프로세서 울트라자바·마이크로자바·자바

OS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을에 웹 검색프로그램 익스플로러 4.0을 출시하고 기업용 사내 인터넷망인 인트라넷시장에 적극 진출한다. 윈도로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OS)시장을 석권한뒤 뒤늦게 인터넷사업에 눈뜬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사업에 새로운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다.

8월께 익스플로러가 통합된 윈도 NT4.0과 무선 사내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을, 내년에는 사무용 통합 소프트웨어 오피스 97을 각각 출시, 기업의 인트라넷 구축시스템 사업에 변신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

〈중앙일보 '96.7.5〉

## 디지털 TRS '표준화' 사실상 무산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의 국내 표준규격이 정부가 허가한 전국사업자가 사용할 예정인 프로토콜과 전혀 다른 기술로 결정됨에 따라 TRS 표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모토롤라·지오텍·에릭슨社 등을 대상으로 8백MHz 대역의 디지털 TRS 표준화작업을 추진해 온 TTA 산하 「TRS표준화 평가소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에릭슨社의 「이더스프리즘」 장비를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오는 9일 열릴 「전파통신연구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지오텍사의 주파수호핑 다중접속(FHMA)기술을 제안한 아남텔레콤에 전국사업권을 허가한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TTA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TRS부문의 표준화작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신문 '96.7.5〉

## 한국전산원 매설물 'GIS표준' 이달중 마련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표준화분과위를 맡고 있는 한국전산원은 국가GIS 전산포맷(SDTS) 및

기본도 표준안이 지난 6월 20일자로 확정·고시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통주제도(지하매설물도) 표

준을 7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국전산원은 상수도·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송유관·지하철 등 7개 부문의 지하매설물도에 대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국립지리원 및 해당기관과 표준화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지리원은 지하매설물도 유관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구축된 데이터 중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

동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공통정보에 대한 주제도의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지난 6월 28일 연세대에서 열린 기본도 소위에서 20여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매설물도 코드표준화안을 제시했다.

<전자신문 '96.7.5>

## 미국 내년초 순수 가상대학 등장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하고 학위까지 주는 1백% 순수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이 내년 미국에서 문을 연다. 뉴욕대·피닉스대·케네디 멜론대 등이 지난 92년부터 평생교육대학원 등 일부 특수 교육과정에 PC통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주지사들이 앞장서서 학교건물없이 전자공간에 문패만을 내건 가상대학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생 선발 요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면 가상대학의 등장은 국내 대학교육시장을 여는 계기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리조나·콜로라도·오리건 등 미국 서부 10개 주지사위원회(WGA)는 지난 달 2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회동을 갖고 가상

대학설립을 위한 기본골격을 정했다.

이제까지 TV나 라디오를 이용,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던 방송대학과 달리 가상대학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화상을 보낼 수 있는 대화형 쌍방향 화상회의 시스템, 과제물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고 세미나도 PC에 카메라가 달린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다. 도서관도 필요없다. 전국 주요 대학·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도 책퍼고 치르는 「오픈북」 방식으로 진행되고 응시자는 「정보사냥」 능력을 테스트 받는다.

가상대학에 대한 정보는 <http://www.westgov.org/smart/vu/vu.html>을 참조하면 된다.

<중앙일보 '96.7.4>

## 인터넷 중독되면 정신질환 발생

「인터넷 중독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후유증이 일반 알코올중독자나 마약중독자의 임상적 징후와 일치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최근 미국 심리학 학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이번 조사는 매주평균 38시간(하루평균 5시간반 정도)이상 컴퓨터 앞에 붙어사는 인터넷 매니아 3백96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광범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터넷 중독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숙취와 같은 몽롱함이나 원인불명의 무력감 또는 일상업무 장애 등 증상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했다.

연구에 참여한 피츠버그·브랜드포드 대학의 김벌리 영교수는 『일부 인터넷 매니아뿐 아니라 전문직종의 많은 직장인들이 인터넷 증세는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교수는 「인터넷 남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환각증세를 들었다. 끝없는 성적환상에도 도

취되거나 소설 연극 등에 등장하는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 급기야는 현실감을 잃고 「무중력 상태」에 빠진다는 것.

이들은 또 「인터넷 교체」에 흠뻑 빠져들어 실생활의 인간관계에 무심해지고 「대인 기피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 함몰되면 항상 새로운 정보나 주요인사에만 「맞들여져」 주변의 일상사에 흥미를 잃고 실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아일보 '96.7.4〉

## 휴대용 단말 PDA 시장 꿈틀

애플컴퓨터·모토롤러·소니·IBM 등이 2세대 PDA를 발표한 가운데 올초 미국 모뎀업체인 US 로보틱스가 이 대열에 가세했다.

이 회사가 내놓은 제품은 「파일럿」으로 무게가 2백g이 채 안되고 약속내용과 전화번호 등을 검색하는 등의 기능을 갖췄다. 또 데스크톱 PC와의 통신이 가능하다. 파일럿은 무선통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최초의 PDA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선보인 PDA들은 앞세대 제품에 비하면 휴대 사용이 훨씬 편리하고 기능도 다양해져 시장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휴렛팩커드의 「200LX」다.

지난 94년 발표된 이 제품은 「로터스 1·2·3」와 「포켓 키크」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 인기 모델로 떠올랐다. 애플도 올초 「메시지패드 130」이란 2세대 제품을 내놓고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의 새로운 PDA는 이전 모델에 비해 운용체제가 개선되고 필체인식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세대 제품 대부분은 여전히 무선통신기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 '94년 38만9천대였던 PDA의 판매량이 지난해 38만1천대로 떨어진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가격에 무선통신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PDA시장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전자신문 '96.7.4〉

## KEC, EDI 표준화 손산업으로 확대

한국 EDIFACT위원회(KEC)가 EDI 표준화 개발업무를 전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KEC의 사무국인 한국EDIFACT표준원(KEB)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된다.

KEC는 전자상거래 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 KEC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직책을 한단계씩 격상하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할 한국전자거래표준원도 확대개편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KEC위원장을 현재의 통상산업부 통상정책 심의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보로, 위원은

각 부처 과장 및 업계의 담당이사에서 각 부처 국장 및 업계의 담당 임원으로 한단계씩 격상기로 했다.

이와 관련 KEC는 KEC 재출범 및 KEB의 재단법인 전환을 위해 기존 위원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예산지원과 관련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전자문서 표준화는 물론 EC/CALS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96.7.4〉

## 미국 96년 올림픽때 전자화폐 실용화 실험

세계최대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인터내셔널社가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중에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화폐 실용화 실험에 들어간다.

비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올림픽 경기장을 중심으로 3개의 현지 은행과 협력, 2백만장의 집적회로(IC)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대용으로 발급될 카드는 「비자 캐시」라고 불리는 직불카드 방식의 IC카드로, 비자는 이미 올림픽 행사장 이외에 시내 음식점 24시간편의점 지하철티켓판매소 공중전화기 영화관 등 약 1천5백개소에 5천대 가량의 카드판독장치를 설치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소비자는 지하철 및 은행 등에 설치돼 있는 전용판매기에서 IC카드를 구입해 현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자는 일회용과 재이용이 가능한 2종류의 카드를 발행할 예정인데 △일회용의 경우 10달러에 서부터 1백달러까지 4종류가 있으며 △재이용형은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최고 1백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경제신문 '96.7.2〉

## 안기부, 컴퓨터범죄 방지 '분과위' 구성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기관과 기업 개인 등을 포함, 범국가 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협의체 형태로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컴퓨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전 국민대상 전자주민카드 발급, 행정정보망 구축 등 국가사회 정보화 전분야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보호추진분과위」는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금융과 환경 의료 등 16개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위원장은 안기부 제1차장(차관급)이 맡고 재경원 등 관련부처 실·국장급 20명이 위원직을 맡게 된다.

이 기구는 또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소와 대학 기업체 등과 정보보호컨소시엄을 구성, 관련기술의 개발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금년말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李在

雨)와 공동으로 「정보보호시스템평가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방화벽시스템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안기부와 업무협약 및 지원을 상호 교환했으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운영관리 및 지원을 받아 왔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기술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민간분야와는 전문기술의 지원 및 자문,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승인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정보보호추진분과위」는 한국정보보호센터와는 달리 안기부와 긴밀한 협력아래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을 수립 협의해나가고 정보통신부와는 필요한 활동지원을 상호 주고받을 계획이다.

〈매일경제신문 '96.7.2〉